자동차판매 회복세 뚜렷… 10월 내수 18.6% 증가

16만4507대 팔려…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상승

개별소비세 인하, 아반떼 등 신차 효과 영향

부진에 시달리던 자동차 산업 부문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10월 자동차 국내판매 물량은 16만4507대(국산+수입)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6% 늘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올해 가장 높은 월별 자동차 내수 판매 증가율이다. 지난 8월 13.2%, 지난달 16.3%에 이어 석 달 연속 두자릿수 상승세다.

산업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와 아반떼, 스포티지 등 신차 효과에 싼타페, 투싼, 티볼리 등 다목적 차량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차는 월 내수판매 1, 2위를 차지한 아반떼(1만2838대)와 쏘나타(1만487대)의 약진에 힘입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7% 증가했다. 싼타페, 투싼 등 다목적차량 증가율은 47.3%나됐다.

기아차는 스포티지와 K5의 신차효과를 톡톡히 봤다. 여기에 다목적차량 카니발, 쏘렌토의 판매 호조가 더해지면서 전년 같은 달보다 25.9% 증가했다.

쌍용차는 티볼리의 신차효과가 이어지면서 2003년 이후 12년 만에 내수 판매 월 1만대를 돌파한 1만8대로 집계됐으며 83.5% 증가했다.

한국지엠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8.6%였고 르노삼성은 4.7% 감소했다.

수입차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8.3%가 증가한 2만1229대가 판매됐지만 지난달보다는 12.7%가 감소했다. 점유율은 12.9%였다.

특히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폴크스바겐은 지난달보다 67.4%가 줄어든 947대만 판매하는데 그쳤다

자동차 산업의 수출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 증가한 25만9306대를 기록했다. 역시 지난 8월 -0.7%, 9월 3.5%에 이어 상승세다.

기아차는 신형 K5의 수출이 본격화한데다 쏘울, K3, 프라이드 등 다양한 모델이 수출을 이끌면서 40.1% 증가했다.

현대차는 신차 수출을 앞둔 아반떼의 실적이 저조한 탓에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했고 한국GM도 2.3% 줄었다.

쌍용차는 러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44.5% 내려앉았다.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난 40만5167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파업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저효과는 비교 대상 시점의 상황이 현재와 차이가 커서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 내수와 수출을 주도하며 33.5% 급증한 기아차가 전체 생산 증가에 상당히 기여했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가 감소한 22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그해 수출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와 신흥국 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8월 27일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뒤 지난달 30일까지 66일간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일평균 내수판매는 올해 1~7월과 비교해 18.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개소세 인하 효과에 업체의 추가 가격 인하와 특별 판촉, 신차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는 목포신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기아차 수출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폭스바겐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 사실 인정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직원들이 최고경영자(CEO)의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폭스스바겐 직원들은 독일 신문 빌트암존탁에 2013년부터 올해 봄까지 타이어 공기압과 연비 등을 조작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수치에도 손을 댔다고 밝혔다고 외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연비가 높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타이어 압력을 조정하고 경유(디젤)에 휘발유를 섞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직원들은 마르틴 빈터코른 폭스바겐그룹 전 CEO가 무리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조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빈터코른 전 CEO는 2012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3월까지 3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사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지만 내부 기술진은 CEO에게 감히 이 같은 사실을 전하지 못했고, 결국 데이터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폭스바겐 측은 사내 분위기나 빈터코른 전 CEO의 경영 스타일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빌트 지의 보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면서 "직원들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연비 데이터가 이상했다는 점을 언급했고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덧붙였다.

/연합뉴스

"4.5t 이상인 화물차 고속도 요금소 통과땐 적재량 측정 설치 하이패스 차로 이용해야"

국토부, 도로법 시행령 12일 실시

최대 적재량이 4.5t 이상인 화물차가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 일반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최대 적재량이 4.5t 이상인 화물차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만 통행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15일부터 최대 적재량 4.5t 이상 화물차에 대해 하이패스 운행을 확대·시행하면서 4.5t 이상 화물차가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적재량 측정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진입시 통행속도는 시속 10㎞ 이하여야 한다. 통행방법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 통행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진출시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나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민 소형차' 프라이드 탄생 28년만에 세계시장 400만대 돌파

'국민 소형차' 프라이드가 세계 시장에서 4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기아차는 1987년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현재의 3세대 모델(UB)까지 프라이드 시리즈를 선보여 올해 10월까지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총 401만9524대를 팔았다. 프라이드 탄생 28년만에 이룬 위업이다.

기아차에 따르면 프라이드는 1994년에 100만대 판매를 돌파한 이후 2009년에 200만대, 2013년에 300만대 고지를 차례로 넘어섰다. 그리고 불과 2년만에 400만대 판매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프라이드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팔렸다. 기아차 수출 1위 차종인 프라이드의 해외판매는 313만6193대이다. 국내에서는 88만3331대가 팔렸다.

2011년 출시한 프라이드 3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프라이드'.

1987년 첫선을 보인 1세대 프라이드는 '국민차'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으나 후속 모델인 아벨라와 리오에 주력 소형차 자리를 내주고 2000년 국내에서는 단종됐다.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중국에서 소량 생산·판매된 후에는 아예 사라졌다.

이후 프라이드는 2005년 소형차 리오의 후속모델(JB)로 다시 돌아왔다. 당시 기아차는 "많은 국민이 '프라이드'라는 차명을 튼튼하고 경제적인 자동차의 대명사로 기억하고 있어 프라이드의 이름을 다시 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3세대 프라이드가 판매되고 있다. 기아차는 2009년 준대형 세단 K7을 시작으로 영문자 K와 차급을 의미하는 숫자를 더해 차명을 정하는 K시리즈를 선보였다. 하지만 소형차 프라이드는 고객들의 선호에 따라 종전처럼 차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프라이드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모든 모델이 100만대 이상 판매돼 밀리언셀러 클럽에 가입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특히 3세대 모델은 2011년 출시 이후 매년 40만대 가까이 판매되는 등 1·2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단종 전까지 200만대 돌파도 기대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30년 가까이 고객의 사랑에 힘입어 소형차 역사에 다시 한 획을 그었다"며 "기아차의 자부심을 넘어 한국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010-2611-7687

르로제꽃
북구 용봉동 425-2번지
(용봉동 개인택시 신협 옆)
꽃향기 감촉 설렘이
매일 가득한 감성 꽃집
대표 박정호 ☎062)413-7673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
사주학 빠르게 가르쳐 드립니다,
(음권, 양권, 사주, 수지침, 수족침, 이침)
☎062)432-1324

구수향
동구 예술의거리 원불교 건너편 골목
생고기 비빔밥 전문, 짱뚱어탕,
한방오리, 오리로스, 예약손님 환영
☎062)224-7687, 010-2611-7687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800-28 동부교육청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광주척추신체교정원
계림동 마사회 건너편 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증상, 전신경락
원장 박재남 ☎010-8827-7799

해택을드리는기업(주)JK상조
서구 상무중앙로 28번길4
(세진빌딩 704호)
직영장례식장 운영(무등장례식장,
만평장례식장, 해피뷰장례식장)
이성희 ☎010-8542-3366

미정
동구 금남로2가(구)동구청 뒤
옛날 구미향
계절 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

고전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현대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
북구 각화동 224-1(2층)
토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회암관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옆
(장열사 정문앞)
소머리국밥, 황태국밥, 수육
단체예약손님 환영
대표 김미자 ☎062)261-5912

북구모아공인중개사
북구 중흥동328-15 중흥모아@후문
아파트, 원룸, 상가, 임야
임대 및 매매전문
대표 고광욱 ☎010-3624-0058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변지유의상실옆)
부대찌개, 철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뚱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쭈꾸미, 붕장어, 샤브샤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이가회관
서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 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찜,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단체모임예약환영
대표 이복례 ☎062)224-1541

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궁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장앞)
경조화환, 동·서양란,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김봉식 ☎062)236-3177

광주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서원식당
동구 금남로2가 구)동구청옆골목
백반, 생삼겹, 오리로스, 병치조림, 갈치조림
단체모임예약환영
☎062)511-1161, 010-7723-120